

보육현장에서의 건강관리 요구

오 경 숙*

보육현장에서 적용하는 보육의 기본원칙(보호·교육·영양·건강·안전·부모에 대한 서비스·지역사회와의 교류)에서도 나와 있듯이 어린이집은 어린이를 하루 종일 돌보는 곳이므로 어린이의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육시설에서의 건강관리란? 신체적·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예방과 가정에서의 결핍까지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나아가 보육시설에서의 영유아 건강관리는 예방적인 서비스와 치료적인 서비스를 병행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은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어서 감기나 유행성 질병에 노출될 소지가 많으므로 보육아동의 건강관리와 종사자의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건강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보육시설의 책임과 의무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보육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면역기능이 낮고 건강한 생활에 대한 사전 정보 및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불편이나 이상 상태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영아보육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보

육시설에서의 건강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에서 실행하고 있는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시설에서의 영유아 건강관리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의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건강관리를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 보육아동 건강관리

가) 건강검진 회수 : 년 1회 이상

나) 검진기관 : 인근 보건소 및 건강관리협회, 영유아의 검전에 필요한 의료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 전염성 질환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시설로부터 격리 치료토록 조치

다) 검사항목중 구강검사는 필히 포함시킬 것

2. 종사자의 건강관리

가) 신규채용시 건강진단 실시

나)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다)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으로 판명된 자는 원치시까지 영유아보육 금지(휴직 등 조치)

3. 위생관리

가) 조리실·화장실·침구 등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실시

나) 부패되기 쉬운 음식물 관리 철저

* 냉장고 확보 및 음식물류 사전검사, 유통기한 경과 등 유의

4. 기타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의료기구 비치

* 변일어린이집 원장

1. 보육현장에서의 건강관리 실태

1. 보육아동 건강관리

보육시설에서의 아동건강진단은 부모, 전문의사 및 치과의사의 협조와 교사들의 노력을 통해 각 영유아의 발육, 성장과정, 질병이상의 유무, 영양상태, 예방접종의 실시상황, 심신발달상태측정, 기생충검사, 치아검사, 가정에서의 생활상태, 시설에서의 생활상태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보육에 활용함은 물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 1년에 1회 이상으로 안내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1회 정도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항목이나 검사시간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예방차원에서의 검진이라고 보기에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 보건소 등 무료검진기관까지의 이동, 의료기관의 검사의뢰 비용, 촉탁의사의 근무여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 보육아동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에서는 간호사의 근무가 의무사항이기는 하나 많은 시설에서 보육교사와 간호사가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겸직의 경우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이 과중하여 간호사의 역할에는 거의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간호사의 별도 채용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나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많이 지녀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영아보육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0세아 전담시설에 간호사 인건비100%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기준이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시설로서 0세아 현원 10명 이상 보육을 해야 간호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한다. 만약 0세아가 50%미만으로 줄어

들면 전담취소 및 지원중지 되기 때문에 간호사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건강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염성 질환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를 시설로부터 격리 치료토록 조치하는 문제이다. 별도의 양호실이 구비되어 있는 원에서는 격리조치 할 수 있으나, 전담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아동이 방치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 양호실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맞벌이 부부 자녀에게 가정보육을 요구할 수도 없다.
-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에서 부모를 대신해서 영유아의 예방접종을 해 주기에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따른다.

2. 종사자의 건강관리

유아의 건강관리 못지 않게 교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교직원의 건강은 영유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신체검사의 실시 및 기타 보건관리 조치를 법으로 규정·보호하고 있다.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나 과중한 업무로 진단에서 나오지 않는(예를 들어서 어깨 결림, 감기, 목, 허리, 무릎 등...)병명에 시달리고 있다.

3. 위생관리

- 시설에서 위생관리
시설에서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이

만지고 입에 넣기도 하는 교재 교구들을 자주 소독하고, 시설내부 방역소독을 해야 하나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 유아들의 위생실습

성인들이 모델이 되어 유아들이 위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장실사용, 손씻기, 이닦기, 손톱의 청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손으로 가리기, 컵이나 식기를 함께 쓰지 않기, 더러운 휴지 버리기, 주위환경 청결에 참여하기 등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보육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적 건강관리는 다음과 같다.

- 예방통신문 : 계절별로 발생되기 쉬운 질병에 대한 예방 통신문
- 외부초빙교육 : 보건소 또는 지역사회 병원 의사를 초빙하여 예방교육 실시
- 교사의 시진을 통한 간단한 응급처치
- 매일 수시로 영유아들의 건강상태를 관찰, 점검
- 부모면담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상태 파악 및 의료기관 의뢰
- 상해보험가입
- 응급처치 동의서 제출
- 투약의뢰서 비치

II. 보육현장에서의 건강관리 요구

- 간호교사 근무의 현실화

보육시설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간호사 채용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전담간호사가 상주하는 시설은 미비하다. 특히 사립 보육시설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그러므로 인건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 건강진단의 현실화

성장기에 있는 영유아의 건강을 제대로 점검·진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1회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건강검진 안내를 구체화하여 기초건강검진항목을 규정하고 검진 횟수를 늘려서 영아는 4회, 유아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 전염성 질환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를 위한 요구

모든 영유아 보육시설은 별도의 양호실이 구비되어야 하며, 건강전문가가 상근하여 완치까지 영유아를 보육하여야 한다.

- 위생관리(소독)의 체계적인 계획과 실시

취사도구는 주 1회 이상, 교재교구, 침구류 등 위생점검 체크리스트를 근거로 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간호교사, 보육교사의 교육

간호학과를 졸업한 간호사가 근무할 경우 보육시설에서의 간호사의 역할 등, 보육교사와 간호사를 겸직한 경우 간호의 역할 등을 재교육하여야 한다(투약 및 응급처치, 예방접종 계획, 수행 및 전염병 관리, 양호실의 연간계획표 및 업무일지, 사고처리 보고서).

- 가정연계

적절한 부모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의 욕구와 개개인 아동의 욕구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협력하여야 한다.